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인성

성경: 레 2:1-16, 요 6:57, 63, 7:37-39, 21:15-17

Ⅰ. 최고의 도덕성은 신성이 우리의 인성에 더해진 도덕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창조된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탁월한 미덕들에는 일곱 가지 주된 항목이 있다.

A. 우리는 반드시 비범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 고전 12:31하, 13:1-8상, 마 5:44.

B. 우리는 반드시 한없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 — 빌 4:5-7, 눅 23:34상, 마 18:21-22.

C. 우리는 반드시 비할 데 없는 신실함을 가져야 한다 — 고전 4:2, 7:25하, 시 37:3.

D.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인 겸손을 가져야 한다 — 벧전 5:5-6, 요 13:3-5, 벧전 3:8, 빌 2:3, 엡 4:2.

E. 우리는 반드시 극도의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 — 마 5:8, 시 73:25, 딤전 1:5, 딤후 2:22.

F. 우리는 반드시 지고한 거룩함과 의를 가져야 한다 — 벧전 1:15-16, 벧후 2:5, 21, 롬 14:17, 마 5:20, 고전 1:30.

G. 우리는 반드시 밝음과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 — 요 8:12, 눅 11:34-36, 시 36:7-10, 111:1.

Ⅱ.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성이셔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성과 관련된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변화된다 — 고후 12:2, 빌 3:9.

A. 그리스도인의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에게서 살아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한다 — 빌 1:19-21상, 고후 12:2.

B. 참됨과 장중함과 의로움과 순수함과 사랑스러움과 평판이 좋음(빌 4:8), 이 여섯 가지 미덕들 하나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미덕들을 가질 수 있다(13절).

C.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경건함과 합당한 인성을 살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는 것이다.

D. 일단 우리가 합당한 인성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섬길 위치와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은혜에 의해, 우리는 합당한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러한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Ⅲ. 우리의 인성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보호된다 — 요 21:15-17.

A.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매혹된 데서 나오는 자제심을 잃고, 무슨 일이나 쉽게 해 버린다 — 고후 5:14-15, 아 1:4, 비교 딤후 1:15, 4:10, 14. 비교 엡 4:17-21.

B.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변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앙망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소유하는 영역 안에 지켜질 것이며,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분명 보상을 받을 것이다 — 요 14:21, 딤후 1:15-18, 4:7-8.

Ⅳ. 우리는 소제물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 있는데, 이 소제물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소제물은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예표한다 — 레 2:1-16, 시 92:10, 벧전 2:21, 롬 8:2-3, 11, 13, 고전 12:12, 10:17.

A. 소제물의 주된 요소인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곱고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모든 면에서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상의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 요 18:38, 19:4, 6하, 눅 2:40, 23:14, 사 53:3.

B. 소제물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이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 레 2:1, 눅 1:35, 3:22, 4:18, 히 1:9.

C. 소제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연합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각각 구별되며, 제삼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는다 — 레 2:4-5, 마 1:18, 20.

D. 소제 안에 넣은 유향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유향을 고운 가루 위에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의 부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2, 비교 마 2:11, 11:20-30, 눅 10:21.

E. 소제물에 쳐진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소금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고, 보존하는 기능을 한다 — 레 2:13.

F. 소제물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4-5, 11상, 고후 5:21, 히 4:15, 벧전 2:22, 눅 23:14, 비교 고전 5:6-8.

G. 소제물에 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천연적인 애정이나 천연적인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 레 2:11, 마 10:34-39, 12:46-50, 막 10:18.

Ⅴ. 우리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먹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구체화된 그 영을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 생명과 생활을 먹고, 예수님으로 조성되며,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 — 요 6:57, 63, 고전 10:17, 빌 1:19-21상, 엡 6:17-18, 렘 15:16, 갈 6:17.

Ⅵ. 예수님께서 부활 안에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계시지 않았던 그 영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그 영이시다. 오늘날 그 영은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셨다 — 눅 24:26, 요 7:37-39, 행 16:7.

A. 우리가 마시며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이 영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면 그러한 영이 결코 계실 수가 없다.

B. 인간 본질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은 흐르는 생명수가 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간 본성으로 조성되셔야 한다.

C. "이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 우리는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며, 축복의 강들로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시는 그분을 영접했다."(앤드루 머리)

D.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나'가 누구인지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나'는 단지 신성한 인격만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마시려고 오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신성을 마실 뿐 아니라, 더욱더 그분의 인성을 마신다.

1. 생명의 흐름을 가지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마셔야 할 뿐 아니라, 높여진 인격의 영, 곧 높여진 한 사람의 영을 마셔야 한다 — 고전 12:13.
2.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넘치는 공급은 단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서 온다 — 빌 1:19.
3.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의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우리는 천연적인 상태로 인간적이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한다.
4.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영을 마신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흐름이 될 것이다.

E. 우리는 교회 봉사와 우리의 매일의 행함과 주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의 영을 누려야 한다 — 딤전 2:8-10, 3:2-3, 8, 11, 14-15, 5:1-2, 딤후 3:1-5, 16-17, 2:21-22, 1:7, 4:22, 딛 2:2-6, 갈 5:22-23, 빌 2:15, 4:8.

F. 믿는 이들은 이 땅의 소금, 곧 이 땅의 부패시키고 썩게 하는 세균을 죽이고 없애는 이들이다. 이러한 소금의 기본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다 — 마 5:13, 비교 레 2:13.

G.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 곧 그들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이들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성을 취할 때에만 빛이 될 수 있다 — 마 5:14-15, 엡 5:8.

Ⅶ.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주된 항목에 의해 예수님의 인성을 누릴 수 있다.

A.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인성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 딤후 2:22.

B.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쉬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이쉬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 딤후 3:16, 엡 6:17-18, 시 119:15과 영어 회복역 각주 1.

C.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이들과 함께'라는 말은 몸의 생활을 가리킨다 — 딤후 2:22, 롬 12:1-3.

D.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딤전 4: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다."(딤후 1:7)

E.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은혜의 임재를 가져야 한다 — 딤후 4:22, 갈 6:18.

Ⅷ.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회복의 전체 상황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생명의 흐름을 위한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

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 부분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많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이 구절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주로 생수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생수가 바로 그 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 안에서 그 영께서 예수님의 인성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이신 이 영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어 있다. 예수님의 인성이 없이 그러한 영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영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39절에 의해 분명해진다. 이것은 그 영이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된 인성으로 조성되었음을 입증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부활한 인성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의 영

여기에 언급된 그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 예수님에 의해 언급된 그 영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는 다른 새로운 분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로만 조성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 영은 더 많은 것으로 조성되셨다. 그분께는 사람의 본질은 물론이고 신성한 본질도 있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본질로만 조성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뿐 아니라 사람의 본질로도 조성되어 있다. 이전에 그 영은 하나의 요소, 즉 신성만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영은 두 가지 요소인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곧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신성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계셨지만, 신성과 인성의 본질 둘 다를 지니신 그 영은 아직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은 인성의 본질 없이는 흐르는 생수가 되실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생명의 강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성으로 조성되셔야 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물만으로는 차(茶)를 대접할 수 없다.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물에 차를 넣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은 위대하셨지만, 사람 안에서 흐르는 생명은 되실 수 없었다. 그분께서 사람 안에서 흐르시려면, 예수님의 인성이 그분 안에 더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께서 천사들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 되고자 하신다면, 아마 예수님의 인성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에게 흐르는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성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분께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

앤드루 머리의 확증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이 문제를 보기 시작했던 것은 약 18년 내지 20년 전이었다. 그 당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체험했던 것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날 예수님의 영께서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도 포함하고 계심을 말하였지만 항상 약간 주저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성령께 인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과 과거 우리가 가졌던 체험에 따라 이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보았다. 오늘날 예수님의 영은 인간의 요소를 포함한다.

그 후 나는 앤드루 머리의 저서인 <그리스도의 영>의 제5장을 다시 읽고 거기에서 가장 강한 확증을 얻었다. 이 장은 여러 해 동안 이 책 안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다. 앤드루 머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우리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께서 어떻게 육체가 되심으로 새로운 존재의 단계로 들어가셨는지를 알고 있다. 그분께서 하늘로 되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는 변함이 없으셨지만,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그분은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셨으며, 스스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인성으로 옷 입으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에 부어지신 하나님의 영도 실로 새로운 어떤 분이셨다. … 오순절날 부어지셨을 때,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 즉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인성으로 짜인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임하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간을 율법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일 뿐 아니라 인성 자체를 신성한 생명과의 교통 안으로 다시 이끌어 우리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사람에게 신성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도덕적이며 가장 참된 인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육체가 되심으로 그분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육체를 거룩하게 하셨다. … 그런 다음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본성으로부터, 그분의 영은 그분의 인간 생명의 영으로서 오셨다. 바로 그분의 인간 생명은 영광스럽게 됨으로 신성과 연합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이루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이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달리 신성한 영의 충만하게 하심과 내주하심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안에 새로운 거룩한 인성을 완성하심으로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곧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신성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성과 함께, 우리의 육체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셨다. … 우리의 입장과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자 인류의 머리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되셨고, 그분의 인간 본성은 신성한 영을 담고 분배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사람의 영으로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 하나님-사람의 영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Spirit)이시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spirit)이시다.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 안에 계신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은 그분의 개인적인 생명과 개인적인 임재의 영(Spirit)이시며, 동시에 믿는 이의 개인적인 생명의 영(spirit)이시다.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시고 새로운 존재의 단계, 즉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이 성취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이제는 그 영의 생활과 일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분은 지금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을 증언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 연합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다. '이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계신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쏟아부으셨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며, 축복의 강들로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시는 그분을 영접했다.

새 생명, 즉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생명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은 그것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도록 계획되셨다. …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스럽게 되신 것과, 인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혼의 갈증을 만족시키며 더 나아가 그 혼을 다른 사람들을 소생하게 하는 원천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이것,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임재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보다 낮은 형체에서 더 높은 형체로

이 모든 내용을 다소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예수님은 육체 되심을 통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보다 낮은 형체에서 더 높은 형체로 변형되셨다. 예를 들어, 안에 생명이 있는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형체는 낮지만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것은 썩음과 죽음을 통해서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자랄 것이다(참조 고전 15:37, 42-43). 그것은 하나의 씨였지만 이제는 꽃이 되었다. 씨의 형체는 보다 낮은 반면에, 꽃의 단계는 훨씬 더 높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의 예수님과 동일했다. 그분의 형체는 낮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체는 더 높아졌다. 그러나 그분의 형체는 여전히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본성과 본질은 동일했지만, 형체는 달랐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육체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여전히 육체이셨지만(눅 24:39), 형체는 바뀌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그대로 계셨지만, 더 높고 부활한 형체로 계셨다. 그런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이 나왔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한 예수님께서 획득하시고 이루신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영 안에 있다.

차(茶)로 가득한 찻주전자가 있고, 그 찻주전자에서 한 잔의 차를 따른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찻주전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바로 그 잔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잔 안에 담긴 차는 찻주전자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영께서 신성한 본질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본질도 갖고 계심을 깨닫는다. 신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인성도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분은 신성한 분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신성을 마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훨씬 더 많이 마신다. 차는 그 안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 부르지 않고 차라 부른다.

타고난 관념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마실 때마다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으로만(신성한 분으로만) 마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나는 예수님을 마실 때 하나님을 마실 뿐 아니라 사람을 마신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거의 없다고 믿는다.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마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훨씬 더 많이 마신다.

나는 은사들의 나타남과 같은 소위 오순절파의 체험을 가진 많은 사람을 보았다. 이상한 일은 그

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생명의 흐름이 없다는 것이다. 집회에서 그들은 자주 기적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많은 은사들을 사용하지만, 가정에 있을 때는 생명의 흐름이 없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상황을 관찰해 왔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익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생명의 흐름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도 성령의 나타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흐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나는 그 해답이 요한복음 7장에 있다고 믿는다. 생명의 흐름을 갖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진 인격의 영, 즉 높여진 사람의 영을 마셔야 한다.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영만을 마신다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물만 마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차(茶)가 부족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차를 마셔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시다. 넘치는 공급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빌 1:19).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실지적인 면에서 적용해 보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사가 되기를 좋아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능력 있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하기를 바란다. 아마 여러분은 천사가 될 갈망은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항상 과장된 많은 보도들이 있지만 일단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날 그러한 것과 같지 않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높이 올려진 인성을 마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성을 지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고자 하신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인간이 아닌 천연적인 인간이 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가련하고 타락한 인성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인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제물로 드려지기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의 인성은 불 못에만 적합하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이 젊은 사람이라면, 합당한 젊은이로서 처신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합당한 젊은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합당한 젊은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인성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합당한 가정생활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이 좋든 나쁘든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의 기준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실지적이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영 안에 있음을 이미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마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성의 요소를 얻을 것이다. 남편이신 주님의 인성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경륜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남편이 되도록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독교나 사회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의 인성의 표준까지 높아져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를 물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운동이 필요하지만 세상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체의 운동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계속 전진하

기를 추구하는 어떤 젊은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과는 결코 함께 운동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백 퍼센트 옳다고 말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기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팀들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많은 때 나는 신체적인 단련을 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천연적인 인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성에 따라 사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인성에 따라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성으로 취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행동의 과정에서 그분의 인성을 취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나는 우리가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하다. 이 인성은 예수님의 영 안에 있다.

흐르고 만족시키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흐름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다. 다른 이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르는 생명이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영을 마신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흐름은 다른 언어나 은사들을 나타내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능력이나 지식이나 가르침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예수님을 들이마시고 있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 기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여러분이 어머니로서 가정을 합당하게 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좀 더 인간적이 되어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문화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내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성에 의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내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인성에 의해 아내가 되어야 한다.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그분의 인성에 의해 남편이 되어야 한다.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학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매우 달라질 것이지만 매우 인간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아내와 남편과 학생과 부모와 자녀와 교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나는 교사들인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된다면, 그 학교 안에는 참된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은 여러분 안에 만족시키고, 살아 있고, 흐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누림으로 그분을 마시는 형제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흐름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확신을 주고, 매혹하고, 결국 회개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생활 안에 있는 복음의 확산이다. 이러한 복음 전파는 능력에 많이 달려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누리는 생활에 달려 있다.

예수님의 인성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과 많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속생명의 흐름을 산출한다. 그러한 생명의 흐름을 가지려면, 항상 예수님의 영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을 누리는 길밖에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 있어서 참된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관념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관념으로 마셔야 한다. 우리는 능력이나 힘이나 기적들을 위해 그 영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위해 예수님의 영을 마시고 있다. 앤드루 머리가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영을 마시는 것은 신성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된 인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인간 생활을 위해 합당한 인성이 필요하며 이 합당한 인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분의 인성은 순수할 뿐 아니라 부활하고 높이 올려진 것이다. 그분의 인성은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변형되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활을 위해 높이 올려지고 더 높아진 이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실제이신 그리스도, 135-144쪽)*